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중앙	□ **탄소 포집·수소 활용…과기정통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862억 투자(2025.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정수소 생산, 저장기술 확보와 CCUS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 2025년 사업계획에 따라 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 CCU 기술고도화 등 신규 연구과제 추진** -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연계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기술 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 CCUS 통합법 기반으로 기술·제품 인증 체계를 구축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대형 신규 R&D 사업기획을 통해 예산 확대도 지속 추진 -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기술 확보를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으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는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지원체계 구축
		□ **흥행 실패한 세계 최초 청정수소 입찰시장…발전단가 경제성이 '발목' (2025.01.08)** - **정부가 세계 최초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열었으나, 높은 발전단가와 경제성 부족으로 남부발전 단 한 곳만 조건에 부합하여 전체 물량의 11.5%만 충족. 청정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나뉘며, 이번 입찰 과정에서 블루수소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 발전단가가 LNG 발전 대비 2배 이상 높아 시장 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비교적 경제성이 높아 주요 입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남부발전은 국책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 - 정부는 환율 변동 부담, 이용률 보장 부족 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초기 참여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 중. 장기적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조달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 **환경부, 올해 수소차 보조금 7천218억 지원(2025.01.01)** -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218억 원의 예산을 책정, 수소버스 2,000대와 승용차 1만 1,000대 등 지원을 본격화.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 강화와 수소연료전지 교체 비용 지원 등으로 보급 안전성 제고**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 수소버스 제작사에 정비센터 설치와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며, 권역별 정비센터 확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 - 기존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고 공영차고지 내 충전소를 확충하며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 환경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방침
	지방	□ **동해안·폐광지 경제 살릴 핵심은… "수소·청정 메탄올에 주목"(2025.01.08)** - **강원도는 동해안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소산업 클러스터와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 삼척에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가 299억 원 예산으로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수소저장 운송클러스터 설계도 올해 상반기에 진행** - 폐광지역 태백에서는 8,500억 원 규모의 청정 메탄올 생산·물류 기지 조성이 계획되었으며, 영월에서는 30년 만에 텅스텐 생산이 재개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 집중. 강원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생태공원, 속초항 크루즈 유치, 강릉~평창 케이블카 건설 등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 중 - 수산식품 클러스터, 어촌재생 사업, 동해항 개발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투자로 산업을 강화할 계획. 강원도는 지역 내 기업들과의 워케이션 협약 확대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
		□ **대전시, 수소도시 조성에 도전한다(2025.01.08)**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400억 원 예산으로 도시 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연료전지 기반 전력 및 냉·난방 공급을 계획. 주거·산업·교통 등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에 수소를 접목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목표** - 대전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풍부한 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부권 수소 경제 거점으로의 도약을 기대**. 수소 트램 도입을 준비 중이며,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 - 연구 용역 및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공모 준비를 마무리하며, 대전의 중부권 거점 가능성을 활용해 수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 **대전시는 이를 통해 수소도시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 중**
		□ **유희태 완주군수, 올해 '글로벌 수소도시' 총력(2025.01.08)** - **완주군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목표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연료전지 검증센터 설립 등 1,400억 원 규모의 수소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 올해는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수소산업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 -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며, 관련 법령 제정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 이를 통해 완주군은 수소산업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대표 수소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 -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과 함께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지역 상권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 혁신 등 다각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 성장 도모**
		□ 당진시장 "수소 인프라·교통복합기지 구축"(2025.01.07) - **당진시는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발표. 석문 산단에 드론 합작법인 설립 지원, 당진항 종합 무역항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 -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원예단지와 청년 창업농 육성, 계절근로자 확대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논콩 재배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 다변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드론 라이트 쇼 상설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등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 **당진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계획**
		□ "폭발 안전점검 이상무" 충주시, 수소버스 운행 재개(2025.01.06) - **충주시는 지난달 폭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수소저상버스 16대의 운행을 재개.**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현대자동차 전문가들이 점검을 진행 -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 특별점검, 정비 인력 배치, 핫라인 체계 구축 등을 도입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방침. **경찰은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 - 충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 이번 조치로 충주 내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신뢰도 향상을 기대
		□ 창원시의회 액화수소 특위, 이미 답은 정해졌다?(2025.01.06) - **창원시의회가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증인들에게 답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 발생. 위증 지적과 강압적 발언이 이어지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갈등 발생** - 특위 위원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창원시가 재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논쟁을 초래.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를 부정하며 창원시가 부담을 질 경우의 불상사를 우려 - **액화수소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관련 사업의 진행 및 책임 문제가 지역 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창원시의 행정적 대처와 공론화 과정이 주목되는 실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지방	□ **평택 기력발전소 45년만에 '명퇴'…'수소 허브' 변신 꾀한다(2025.01.06)** - **평택 기력발전소 1~4호기가 45년 만에 운영 종료. 정부와 서부발전은 해당 부지를 활용해 수소만을 연료로 쓰는 수소 전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평택시는 이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 기력발전소는 1980년부터 수도권 주요 전력공급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했으나, 화석연료 기반 발전시설의 한계로 인해 환경 규제 강화와 탈탄소 흐름 속에서 그 수명을 다함 - **수소 전소 발전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 이전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부지 활용 방안 마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정부와 서부발전은 친환경 발전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
		□ **부안군 부군수 "수소산업 육성·부안형 푸드플랜 구축·휴양관광단지 육성 등 세바퀴 경제육성 최선" (2025.01.03)** -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부임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관광단지 조성 등 군정 주요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발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 추진** - 부안군은 다양한 민관 협력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특화 사업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 - 정 부군수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힘
		□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2025.01.03)** - **울산시는 태화강역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국비와 시비를 각각 30억 원씩 투입해 수소 대량 이송이 가능한 배관 방식을 채택. 기존 트럭 기반 수소 이송 대비 물류비 절감과 안전성 강화** - 시간당 80kg 충전이 가능하며, 하루 최대 승용차 336대, 버스 76대 충전이 가능. 충전소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버스, 트럭, 승용차를 대상으로 복합 운영 - 울산시는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소충전소 건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소통합관리센터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
		□ **김제시 국내 최초 신수소에너지 '승부수'(2025.01.06)** - **김제시는 우분(소의 배설물)을 고체연료로 활용한 수소에너지 개발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 3단계 전략으로 우분 고체연료 개발, 합성가스 추출, 수소 생산을 목표로 설정** - 김제 에너지 얼라이언스 협약을 통해 15개 기관과 협력하며,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오는 3월 시작. 이를 통해 지역특화형 수소생산 모델을 확립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우분 퇴비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방안으로 주목. 김제시는 수소산업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
		□ **제주형 수소경제 구축, 에너지 대전환 '핵심'(2025.01.02)** -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6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화력발전을 수소발전으로 전환할 계획** - 출력 제어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저장 기술 강화를 위해 대규모 BESS 설치와 수소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 높은 수소는 저장성과 친환경성이 강점으로 부각 - **경제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그린수소 상업 판매와 기술개발에 집중. 제주도는 3월 완료 예정인 '제주형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
		□ **울산시도시공사,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성공 완료 공로 장관상(2025.01.01)** -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수소배관,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탄소제로 아파트 등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 - 율동지구 수소도시 통합운영시스템과 수소충전소 직공급 배관망 구축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소도시 구축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 **울산시는 향후 수소도시 조성 및 생태계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발전할 계획**
UAM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해당 없음)
우주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순천시장 "문화·우주·바이오 3대 경제축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2025.01.01)** - **순천시가 문화,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설정하며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목표. 정원박람회의 지속적인 지역 경제 효과와 미래 상상력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구상** - 문화콘텐츠 산업 및 우주 발사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변화 추진 - 민생 안정과 복지 개선,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순천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아시아 대표 혁신도시로 성장시킬 계획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우주	지방	□ **고흥군수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8대 군정비전 달성 전력"(2025.01.01)** - **고흥군이 민간 발사장과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 우주산업 지·산·학·연 캠퍼스를 통해 입주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체계 마련 목표** - 드론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농수축산업의 첨단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 고흥 쌀 유통 활성화 등 농가 소득원 발굴 계획 -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둬 고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목표**
		□ **우주청 개청으로 끼운 첫 단추… '특별법 제정' 난관 넘어야(2025.01.02)** -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며 경남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 목표. 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계획. 인재 유입과 관광 활성화 강조** - 우주항공청은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책 수립 및 국제 협력 추진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기술 교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어려움 지속. 국회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 진행 중**
		□ **구리시, 천문우주과학의 메카 '인창도서관 천문대' 개관(2025.01.06)** - **구리시 인창도서관 천문대 개관으로 시민들이 천문우주과학을 쉽게 접할 기회 마련. 6m 원형 돔 관측실과 고성능 망원경 설치로 최적의 관측 환경 제공** - 일반 관측, 방학 프로그램, 견학 등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무료 사전 예약제로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 천체 관측과 우주 탐구를 통해 시민들의 과학적 관심 제고와 지역 대표 과학 명소로 자리매김 목표. 구리시의 과학문화 중심지로 발전 기대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 **코트라 "항공우주산업서 이탈리아와 협력 강화해야"(2025.01.03)** - **코트라가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시장 동향, 협력 사례, 인증 요건 등을 포함해 한국 기업의 진출과 협력 방안 제시** - 이탈리아는 유럽 4위 항공기 시장과 10% 성장률의 우주산업을 보유. 드론, 차세대 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과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기대.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목표**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정비 분야 직업능력 개발 공로로 감사패 수상(2025.01.06)** -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항공정비(MRO) 직업능력 개발 공로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패 수상.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실습으로 전문 인력 양성 성과** - 2021년부터 매년 500명 이상 교육생 배출.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실습 과정을 통해 직무능력 강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교육 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공헌 목표.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정비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지방기관	□ **대전TP, 우주산업 규제자유 특구 공청회(2025.01.08)** -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시가 우주기술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개최. 우주산업 기업과 전문가, 관계자가 참여하여 규제 완화 방안 및 특구 계획 보완 논의** - 특구 지정 시 민간기업의 참여와 혁신 유도로 우주산업 성장 가속화 기대. 우주기술 연구와 활용을 통해 대전을 일류우주도시로 도약시키려는 비전 제시 - 특구 계획안 보완 및 지정 승인 추진을 통해 규제 혁신 기반 마련. 우주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 예정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니마, 토론회) 주요 내용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자체 개발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유럽경제위원회 R134 인증 획득(2025.01.08)** -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자체 개발한 54리터 수소 연료탱크가 UN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R134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이 탱크는 충격, 열 안정성 등 까다로운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용으로 사용될 예정** - 일본 의존도가 높던 기존 플라스틱 라이너 대신 코오롱ENP가 개발한 소재를 적용했으며, 자체 개발한 복합소재 중간재와 드라이 와인딩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량 생산 체계도 확보 - **이번 인증을 계기로 방산, 우주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전반적인 수소 저장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수소 저장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
		□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원년(2025.01.02)** - **포스코는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HyREX 공법 기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돌입. 기존 용광로를 대체하는 유동환원로와 전기용융로를 통해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며, 기술 선점 경쟁에 나섬** - 30만 톤 규모 데모플랜트를 2028년 준공 목표로 건설하며, 장기적으로는 포항제철소에 HyREX 기반 수소환원제철소를 설립. 이 과정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과 해양매립 허가 등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 글로벌 철강사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UAM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판교~광화문 15분' UAM, 생닭 쏴서 충격 시험?…조류 충돌 대책 없다(2025.01.07)** -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이 안전 대책 미비로 우려를 사고 있음. 특히 UAM 실증 노선이 철새 도래지와 겹치지만,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은 부족한 상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강변과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실증에 착수하며, 장기적으로 UAM 친화형 건물을 1만 동 이상 조성할 계획** - 조류 충돌 위험은 항공기에 비해 UAM에서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현재 관련 실험은 생닭 발사 시험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 충돌 실험 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과가 아직 부족. 아라뱃길 등 수도권 철새 기착지가 UAM 실증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안전 문제 해결이 필수적 - **UAM의 인명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류 비행 고도, 이착륙 경로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옴. 철새 도래지와 UAM 노선 간 겹침을 방지하고, 빌딩풍 등 도심 환경 변수를 고려한 정밀 안전 대책 마련 요구**
우주	민간기업	□ **한화, 방산 · 우주 · 항공 등 글로벌 확장에 박차(2025.01.01)** - **한화는 방산,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확장 목표.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형 사업 구조 구축 계획. 주요 해외 인수합병과 맞춤형 현지 전략 강화** - 우주 사업 부문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발사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강화. 태양광 에너지와 항공엔진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미래 산업 선도 목표 -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방산 및 우주 분야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망
		□ **"K-방산 비상 시작"...KAI, 항공우주산업 미래비전 제시(2025.01.02)** - **KAI는 KF-21 개발, 소형무장헬기 양산 등 핵심 사업 수행으로 항공우주산업 성장 목표. 해외 수출 및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 추진** - 미래 6대 사업으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고속중형기동헬기, 우주솔루션 등 선정. AI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 도약 목표. 신규 시장 개척과 내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계획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印, '우주 도킹' 첫 도전… 성공땐 美-러-中 이어 4번째(2025.01.01)** - **인도가 우주 도킹 임무에 처음 도전하며 성공 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달성 국가가 될 전망. 극궤도위성발사체(PSLV)를 통해 쌍둥이 위성 '타깃'과 '체이서'를 고도 470km에서 도킹하고 분리하는 실험 진행 중** - 우주 도킹은 초속 7km 이상에서 궤도를 일치시키고 결합하는 고난도 기술로 향후 유인 우주 탐사의 핵심. 성공 시 우주 탐사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글로벌 우주 협력 파트너로서 위상 강화 전망 -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이번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의 조립 및 도킹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영향력을 넓힐 계획. 1월 7일까지 실험 완료 목표로 연구 진행 중
	기타	□ **새해, 민간이 우주산업 주도… 누리호 발사에도 한화 참여(2025.01.01)** - 2025년,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산업인 '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예상. 미국의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기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들의 주도적 역할 강화. 국내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하며 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구축 목표** -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인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도 상업 발사 준비 중. 2024년 2조 7000억 원 규모였던 소형 발사체 시장이 2032년 6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 예상 -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발사체 기술 발전으로 국내외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은 신기술 혁신과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2025년 `K-발사체·위성 풍년`…누리호 4차발사에 기업들도 `우주로`(2025.01.08)** -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발사체의 상업 발사로 K-발사체와 위성 개발의 도약 예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주관하며 국내 기술력 강화 목표** -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들도 상업 발사 준비 중. 아리랑위성 6호,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3호 발사를 통해 공공 및 상업적 활용 확대 계획 - **위성과 발사체 기술 발전으로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끝-